

"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"

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.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도 항상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. 책을 통해 다양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생활화하였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책이 안창호 선생님의 위인전입니다. 이 분은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늘 말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. 특히 위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. 이를 통해 '내일부터는 꼭 해야지.'라는 막연한 다짐이 '지금부터 시작하자.'라는 실천으로 바뀌었습니다. 말보다 실천을 보여주는 자세는 신뢰도를 높여 동아리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원들을 잘 이끌 수 있었습니다. 진정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며 선후배에게 신뢰감을 주는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.